

2013.

300941 호혜소
2

5/12 (화) 일기

오늘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갔다. 원래
 항상 예배는 9:30분인데 이날은 디스코클럽에서 온경사님이
 있어서 예배예배를 드려 갔다. 오후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조금 늦어서 디스코클럽에 늦었다. 어제 너무 늦게 가서
 줄기였지만 일찍 일어나서 교회가 갔다옴까지 기분이 좋았다.
 9시전까지 잠이 드는게 싫어서 아버님에게 차기를 끝내자마자
 밖에서 옴마가 옴: 50분 까지 잠이 드는게 싫어 데려다
 주었다. 계란이랑 밥을 한끼 먹었고 희영이랑 만나서
 주영이네 아버지네 갔다. 이젠까지 전혀 편하지 않았는데
 주영이 드는게 싫어서 너 ~ 무 썰고 긴장되었다. 첫시행이고
 다른 학생 몇몇까지 데리고 와서 보는 게까 나 혼자하는
 지고 싶지 않았었다. 그런데 나날 아직 미숙해서 자선이 너무 없고
 그래서 목사님한테서도 편하게 지낼 것이다. 9:20분쯤
 도착했는데 김동현 형과 주영이를 옆에 들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행은 11시가 됐다. 무는 다른 학생이 6분쯤 들이면서
 마다 정돈을 하게 했다. 11시부터 4:30까지 시행이었는데
 주영이네들이 너무 잔해서 기가 죽었다. 그러다가 두저히 불행해서
 1시간 정도 남아서 형과 영애네가 끝이났다. 너무 지치고 밥도 못먹어서
 노을은 3가서 치킨도 먹고 밥도 먹었다. 걸어서 잠이가는 데 너무
 미안하게 해줘서 편다 옴 편다 옴이다 ㅋㅋ 처음 생각해도 웃기다
 헤어지는데 아쉽다 희영이랑 동네 돌아다니며 깔깔대고 웃었다.
 잠이 11시쯤에 들어가도 급히 일어나서 샤워하고 바르겠다.
 오늘은 여유롭게 저녁에 친구들 다 수다도 떨고 시행도 하게
 잘 쉬기 같다. 즐거움 기록한다. 끝!